

WEBVTT

00:00:27.672 --> 00:00:29.417

-안녕하십니까? 철수입니다.

00:00:29.517 --> 00:00:31.003

-안녕하십니까? 존슨입니다.

00:00:31.103 --> 00:00:32.107

-철수와.

00:00:32.207 --> 00:00:33.156

-존슨의.

00:00:33.256 --> 00:00:35.363

(함께) 취업노트.

00:00:38.173 --> 00:00:41.138

-존슨 씨, 오늘은
취업의 기본 중의 기본

00:00:41.238 --> 00:00:42.816

이력서에 대해서 한번
이야기를 해 볼까요?

00:00:42.916 --> 00:00:45.123

-그렇죠, 여러분이 지원할 때
가장 처음 쓰게 되는 게

00:00:45.223 --> 00:00:46.061

이력서 아십니까?

00:00:46.161 --> 00:00:49.766

-그럼요, 그런데 이력서가
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

00:00:49.866 --> 00:00:54.306

인사담당자들이 딱 받자마자
보이는 게 이력서인 거야.

00:00:54.406 --> 00:00:59.917

-그렇죠, 그러니까 취준생들이
그런 의문 되게 많이 갖잖아요.

00:01:00.017 --> 00:01:03.194

내가 자소서를 쓰면
이 사람들이 볼까, 말까?

00:01:03.294 --> 00:01:06.047

그래서 자소서는 안 보는
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.

00:01:06.147 --> 00:01:07.846

그런데 무조건 인력서는 봅니다.

00:01:07.946 --> 00:01:11.514

-그럼,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
요약해놓은 목차 같은 거잖아.

00:01:11.614 --> 00:01:15.619

-그렇죠, 어떻게 보면 그 사람
자소서로 이야기 풀어놓은 거를

00:01:15.758 --> 00:01:19.591
이렇게 압축해서 다 갖다 넣은 게
이력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

00:01:19.691 --> 00:01:23.550
-사실 이력서의 중점은
바로 경력에 있는 거죠.

00:01:23.650 --> 00:01:29.916
-그렇죠, 경력 같은
경우가 좀 황당하잖아요.

00:01:30.016 --> 00:01:32.807
신입을 지원하는데
경력 사항이 딱 나와 있으니까.

00:01:32.907 --> 00:01:36.610
-그런데 경력 사항 쓸 때
조금 더 자세하게

00:01:36.710 --> 00:01:38.394
경력 기술하라는 그런
회사들이 있어.

00:01:38.494 --> 00:01:39.307
-그렇죠.

00:01:39.436 --> 00:01:40.367
-신입들인데도.

00:01:40.531 --> 00:01:42.841
-한두 문장이라도 기술하라는
그런 게 있죠.

00:01:42.979 --> 00:01:46.330
-그게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라도
경력을 기술해서 써라,

00:01:46.475 --> 00:01:49.244
이런 경력 기술서를 따로
제시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.

00:01:49.344 --> 00:01:52.720
이런 데는 중요한 게 내가
누구랑 같이 일을 했다.

00:01:52.894 --> 00:01:54.768
이렇게 정말 초보
수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

00:01:54.935 --> 00:01:57.685
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다고
쓰는 게 중요한 거야.

00:01:57.840 --> 00:02:01.410
-이게 정말 기술이 필요한 게
그냥 한 가지 일을 했어도

00:02:01.510 --> 00:02:02.894

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.

00:02:03.056 --> 00:02:06.089

그래서 만약에 자기가
홍보대행사에서 일했어.

00:02:06.189 --> 00:02:10.768

그런데 영업직에 지원하면 거기서
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에

00:02:10.868 --> 00:02:15.535

맞춰서 나는 대행사 담당자들이랑
아니면 기자들이랑

00:02:15.691 --> 00:02:18.634

커뮤니케이션을 해서
풀어내는 역할을 했다.

00:02:18.734 --> 00:02:21.773

이렇게 쓰고 아니면
다른 언론사를 지원해.

00:02:21.873 --> 00:02:25.300

그러면 내가 홍보대행사에서
보도 자료를 만들면서

00:02:25.466 --> 00:02:27.045

글 쓰는 능력을 많이 길렀다.

00:02:27.145 --> 00:02:33.155

그런 식으로 한 가지 같은
경험이라도 자기가 목표로 하는

00:02:33.314 --> 00:02:36.577

회사에 따라서 다양하게,
다채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.

00:02:36.677 --> 00:02:38.740

그리고 이력서에 써야
할 게 뭐가 있죠?

00:02:38.840 --> 00:02:40.918

-이력서에 써야 할 거라면.

00:02:41.039 --> 00:02:41.951

-취미랑 특기가 있죠.

00:02:42.099 --> 00:02:42.917

-취미, 특기란 있죠.

00:02:43.081 --> 00:02:48.549

-취미, 특기 이것도 사실
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렇잖아.

00:02:48.705 --> 00:02:51.303

이걸 내가 잘 써야 하나?

00:02:51.403 --> 00:02:53.244

사실 뽑는 입장에서
보면 별거 아닌데.

00:02:53.366 --> 00:02:54.427
-별거 아닐 수 있지.

00:02:54.527 --> 00:02:57.383
-그러니까 그 사람들은
그냥 빼기가 귀찮아서,

00:02:57.483 --> 00:03:00.318
전에 만들었던 이력서 양식에서
이걸 빼기가 귀찮아서

00:03:00.418 --> 00:03:03.137
그냥 놔둔 건데 취준생
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.

00:03:03.237 --> 00:03:07.561
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
써야지 이 기업에 잘 보일까?

00:03:07.661 --> 00:03:11.515
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
철수 씨 같은 경우는 뭐 썼습니까?

00:03:11.615 --> 00:03:14.626
-저는 취미 같은 경우에는 연애.

00:03:16.727 --> 00:03:18.365
-그러면 특기는?

00:03:18.951 --> 00:03:21.293
-특기는 다양하게 많이 썼죠.

00:03:21.393 --> 00:03:24.113
글쓰기, 음악 활동 이런 걸
많이 썼던 것 같은데

00:03:24.213 --> 00:03:27.987
아무튼 사실 이런 취미,
특기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

00:03:28.087 --> 00:03:30.014
어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
하다 보면 정말 그런 거 시켜.

00:03:30.134 --> 00:03:35.123
-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어필하고
싶다면 그런 걸 써도 되고

00:03:35.223 --> 00:03:40.871
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할 때
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.

00:03:40.971 --> 00:03:44.839
영업 같은 데 쓸 거면
남들이랑 어울리는

00:03:45.003 --> 00:03:46.998
스포츠 같은 거를
쓰면 가산점 있다.

00:03:47.173 --> 00:03:51.046
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
알아서 하면 될 것 같고.

00:03:51.224 --> 00:03:54.486
취미나 특기 같은 거 쓸 때
여러분,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

00:03:54.586 --> 00:03:58.366
그 앞에서 시킬 수 없는 거
그런 거를 써야 합니다.

00:03:58.396 --> 00:03:59.776
-그렇죠, 카약 이런 거 있잖아요.

00:03:59.815 --> 00:04:02.518
-그렇죠, 자기가
무슨 특기에 성대모사

00:04:02.618 --> 00:04:04.191
그런 거 쓰면 무조건 시키는 거야.

00:04:04.291 --> 00:04:04.708
-그럼요.

00:04:04.827 --> 00:04:08.598
-저 같은 경우도 취미,
특기에 노래하기, 작곡하기

00:04:08.732 --> 00:04:11.415
이런 걸 썼는데 그러니까
그러면 작곡한 노래 있으면

00:04:11.548 --> 00:04:14.121
한번 해 보세요, 그러더라고.

00:04:14.221 --> 00:04:14.972
-했어요?

00:04:15.072 --> 00:04:17.867
-안 했죠, 그래서 떨어졌나 봐요.

00:04:17.967 --> 00:04:21.268
-아무튼 이력서라고 해서 여러분이
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

00:04:21.368 --> 00:04:24.457
그런 하나하나가 이렇게
활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

00:04:24.557 --> 00:04:26.252
너무 거짓말을 쓰면 안 됩니다.

00:04:26.352 --> 00:04:31.041
-그런데 취미, 특기 같은 것도
자기가 여기서 조금 튀어보고 싶다,

00:04:31.141 --> 00:04:33.304
그런 거 있으면 진짜 성대모사 써서

00:04:33.404 --> 00:04:36.451

자기가 그런 거
할 수도 있는 거죠.

00:04:36.558 --> 00:04:38.783

-물론 대부분 기업이
안 시키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

00:04:38.894 --> 00:04:41.322

기업이 시키면 정말 여러분한테
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.

00:04:41.462 --> 00:04:42.168

-그렇죠.

00:04:42.661 --> 00:04:45.640

-아무튼 이력서 이야기를
이렇게 여러 가지 해 봤는데

00:04:45.740 --> 00:04:47.334

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
싶은 거는 그거야.

00:04:47.485 --> 00:04:51.874

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
담당자들이 보는 첫 얼굴이잖아.

00:04:52.050 --> 00:04:55.303

가장 간략하고 명료하게 써야
하는 거야, 한눈에 들어오게.

00:04:55.470 --> 00:04:58.855

그렇기 때문에 수치와 성과 이런 걸
중심으로 이력서를 써 나가자.

00:04:59.016 --> 00:04:59.850

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.

00:04:59.997 --> 00:05:02.880

아무튼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
저희 예전 이력서 사진

00:05:02.998 --> 00:05:04.302

한번 찾아봐야겠어요.

00:05:04.722 --> 00:05:06.084

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.

00:05:06.232 --> 00:05:09.476

-그 사진이 제 인생 사진인데요.

00:05:09.576 --> 00:05:10.918

-그렇죠, 저도 돈 주고 찍었어요.

00:05:11.086 --> 00:05:13.011

-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
돈 내고 사진을 찍겠어.

00:05:13.182 --> 00:05:15.737

-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
돈 주고 찍는 사진이 될 수 있으니까

00:05:15.906 --> 00:05:18.362

아무튼 그 마음을 한번
이력서를 쓰면서 다잡고

00:05:18.512 --> 00:05:21.213

전국에 있는 취준생
여러분, 오늘도.

00:05:22.298 --> 00:05:23.853

(함께) 건승하십시오.